

사회

음식점 잔반 재사용 금지

(남은 음식)

음식물쓰레기 크게 늘 듯

내일부터 시행 ... 광주시 7월 한달 홍보·계도 후 단속

3일부터 식당에서 남은 음식(잔반) 재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식점들이 남은 반찬을 모두 쓰레기통으로 내놓을 경우 광주지역 쓰레기 발생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기존 물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특히 음식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식당인데다 적발될 경우 제재가 강력해 경제난을 겪는 요식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 단속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7월 한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남은 반찬 재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1년 이내에 네 번 적발된 업소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모두 17만7천995t으로 하루 평균 48t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것이다.

시와 각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감량시책에 따라 그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과 민간업체에서 이들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는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48t의 음식물쓰레기 중 광산구 본덕동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15t, 서구 유덕동 민간업체 처리장에서 21t이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12t은 전남 지역 시·군에서 위탁처리되고 있다. 이 음식물쓰레기의 운반·수집비용을 제외한 순수처리비용 연간 1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 남은 반찬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소는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서구 치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47)씨는 "취급식으로 반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각 자치구는 남은 반찬을 재사용할 경우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 처벌 수위가 높았는데, 상당수 업소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홍보·계도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나 곧 정착될 것"이라며 "다만 반찬 재사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단속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실제 단속에 나서게 되면 업주들과 일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前남편 살해 40대女 '자기방위' 인정

광주지법, 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남자·살해극을 기도한 전(前)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본능적인 '자기방위'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일 흥기를 지닌 채 차량 납치극을 벌인 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여·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범행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섰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태

저였던 만큼 보통의 살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은 적다"며 "장씨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고통은 폭행이나 협박 수준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1992년 정모(44세)씨와 결혼한 뒤 정씨의 폭력과 도박 등을 견디다 못해 10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가 2007년 7월 재결합했지만 똑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자 지난해 12월 집을 나왔다.

이후 장씨는 지난 1월 택시기사인 정씨에 의해 납치된 뒤 폭력과 협박을 받으며 외딴 곳으로 끌려가는 급

박한 상황에서 목도리로 정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억대 고리 채권 50대 검거

건설사 대표 207명도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광주·전남 등 전국 중소기업체 103곳을 상대로 연리 365%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거나 불법 증빙자료를 제공한 뒤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정모(55)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본금 짜맞추기'를 위해 정씨로부터 불법 증빙자료를 받아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광주·전남 22개 등 전국 103개 건설업체 대표 등 20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애들아, 아침밥 꼭 먹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 직원들이 1일 광주진흥중·고교 앞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전남본부는 전남쌀로 만든 삼각김밥 1천개와 ‘아침밥과 건강’이라는 홍보자료를 나눠줬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경찰청 개청 2년 '우울한 생일'

끊임없는 경찰관 비리에 미제 사건 산적

광주지방경찰청이 2일로 개청 2주년을 맞았지만 여의사 피살과 금은방 강도 등 미제 사건이 산적한데다 그동안 경찰관 비리도 끊이지 않아 우울한 생일을 맞게 됐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치안지표 등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광주에서 발생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1만4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68건에 비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도 올들어 7천518건을 해결해 72.0%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372건, 59.2%에 비해 12.8%p 높아졌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강력사건 수사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길에서 일어난 광주 모병원 여의사 피살사건은 사건 발원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 한 보석공방에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침입, 흥기로 위협한 뒤 3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해 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북구와 동구 6곳의 동(洞) 주민센터가 잇따라 털렸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다. 지난 3월 19일 북구 중흥동 H교회관에서 일어났던 50대 남성 동기 피살사건도 미궁에 빠졌다.

경찰관 비리도 끊이지 않아 사회적 오라실 업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올해 3월에는 광산경찰서 경찰관 1명이 구속됐다. 또 4월에는 오락실 단속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광산경찰서 경찰관과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밖에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개청 후 대도시 치안에 걸맞은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룸살롱 술집대' 비위 검사 4명 징계 청구

대검찰청 검찰부

사건 관련자에게 술 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 4명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징계가 청구됐다.

1일 대검찰청 검찰부(검사장 이창

세)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급 1명을 포함한 비위 검사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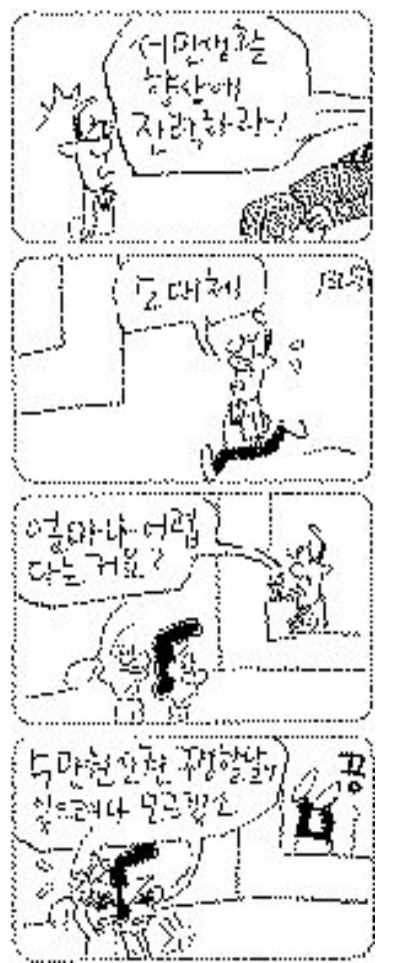
이들은 검찰청사 밖에서 사건 관련자를 따로 만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거나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에 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민우태 전 전주지검장과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원침 (7844) 김장두



여수 모델서 숨진 영아 발견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시 한 모텔 욕실 휴지통에서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아의 신원을 발견하기 전날 40대 남자가 해당 모텔 객실에 투숙했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공사대금 못 받아 가전제품 '슬쩍'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양심을 품고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집기를 마구 훔친 50대 경찰서원."

○"구례경찰은 1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복지시설 내에 있던 가전제품 등을 몰래 가져간 송모(54)씨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9일 구례군 모 복지시설 관리인 A(35)씨가 없는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간 뒤 TV와 식탁, 의자 등 76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이 공사했던 복지시설에서 공사대금 1억5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감행."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kwangju.co.kr